

법무매거진

제8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법조인 동정

-한국세법학회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후원



2001년부터 국민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 각종 조세 학술단체의 회장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했다.

조세 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 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는 제8회 조세 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조세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후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역대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제1회 권광중(81·사법시험 6회) 변호사, 제2회 우창록(70·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 제3회 이철송 교수, 제4회 소순무(72·10기) 변호사, 제5회 옥무석 교수, 제6회 한만수(65·13기) 변호사, 제7회 임승순(69·9기) 변호사다.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다.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돼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